돈은 무료쿠폰이다

(예레미야 18:1~23)

1.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2.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3.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녹로로 일을 하는데
4.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5. 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돈은 무료쿠폰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돈은 무료쿠폰이다'

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나왔던 토기장이의 비유는 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비유로써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자면 "공짜로 살면 흥하고 값을 지불하는 인생은 망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공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공짜를 바라면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공짜를 바라는 것은 의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칭의 속에는 죄 사함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고 가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세상을 공짜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공짜로 살아간다는 의식이 없다면 진실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주시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의 칭의가 분명하다면 삶은 공짜로 산다는 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4~27절을 보면 종교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의 선생은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묻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말에 자존심이 상하고 민망한 베드로가 종교세를 내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묻기도 전에 먼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온 천지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셨고, 인간이 만든 것들도 하나님의 지혜와 여건을 허락하셔서 생겨나게 된 것들입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삼성, LG, SK, 독일의 벤츠, 미국의 애플사 등의 회사들이 만드는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이니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소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각자 개인과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허락하실 뿐입니다. 이렇게 공짜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에서 돈은 무료쿠폰에 지나지 않습니다.

돈이 어떻게 무료쿠폰일까요?
선민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게 무엇인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공짜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고 실족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계속 갈등을 겪다보면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인생의 주된 흐름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종교세를 내셨듯이, 같은 이유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료쿠폰으로써 돈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인이 필요에 따라 삼성의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삼성이 만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셨기에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래대로라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살 수 있는 100만 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100만 원은 무료쿠폰입니다.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납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돈을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LG대리점에 가서 TV를 한 대 그냥 가지고 나와도 문제 삼지 않

으십니다. 제가 지금 미친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녀들이라면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실족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고 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을 꺼내어 종교세를 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한 세겔을 거저 받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용하라고 돈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둑놈으로 오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곧 힘으로써 생각합니다. 자신의 주체성의 원칙대로 소원과 바람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 삶이 이끌려지는 선민들에게는 돈은 어디까지나 무료쿠폰일 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32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공짜로 받는 것임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것을 믿음에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얻기 위해 돈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이 무료쿠폰이면 됩니다.

제가 집사람과 외식을 하게 되면 3,000원~8,000원으로 다양합니다. 아주 특별한 날에는 만원짜리를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싼 음식을 먹든지 비싼 음식을 먹든지 저로써는 다 공짜입니다. 적어도 저는 십자가 복음방송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플 때에는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짜입니다. 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하나님이 쿠폰으로 주신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000원 내고 칼국수 사먹고 5,000원 내고 짜장면을 사 먹고 8,000원 내고 소머리국밥을 사먹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것들은 공짜입니다.

신명기 6장 10~11절을 보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복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공짜로 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해 가지는 우리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만드신

세상에서 내게 필요한 것이 다 공짜로 주어지리라고 믿는다면 자신을 위해 돈을 끌어 모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에 문제는 돈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무료쿠폰은 내게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돈이라는 무료쿠폰의 유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려고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만큼의 무료쿠폰으로써의 돈도 주실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돌들로도 내게 원하시는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문제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필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스스로 멋대로 갖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고 집착하면서 소원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체성은 존중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돈이 가진 무료쿠폰으로써의 의미는 상실되고, 평생 돈을 벌기 위한 과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스스로 나서서 가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돈이라는 무료쿠폰을 주실 것입니다. 설령 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민의 입에서는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는 말이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한다면 아직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체성은 판단하고 생각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도 여기서 발생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한다면 주체성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갖고 싶어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돈을 벌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주시는 무료쿠폰으로써의 돈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많거나 적거나 그것은 무료쿠폰이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체성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게 필요하다고 결정하셨다면 어떻게 해서든 내게 주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짜의 범위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앞서 보았던 신명기 6장 10~11절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으로써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 집과 포도원과 우물이 언급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의식주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오르게 된 왕의 자리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을 때도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요셉도 총리가 되기 위해 무엇 하나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지불한 것이 없으니 공짜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공짜가 되어야만 합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판단대신 스스로 필요한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난리가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만약 내게 필요 이상의 무료쿠폰의 돈이 주어지게 되었다면 무슨 이유에서 일까요?
돈은 무료쿠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공짜로 살게 하는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무료쿠폰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직장에서 나의 주체성을 죽게 하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이 에덴에서 살아갈 때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후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나의 주체성을 죽임으로써만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도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는 곳이지 무료쿠폰인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데 주머니에는 돈이 없습니다. 이 상황은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이 없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좋은 아파트에 이사 가고 싶은데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무료쿠폰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실 계획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파트를 소원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당장 주실 생각이 없으신 것입니다.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기어코 얻으려 할 때에 삶은 괴로워집니다. 내 뜻대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될지라도 그 결과는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토기장이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녹로에 진흙을 올리고 그릇을 빚고 있었는데 도중에 진흙이 터져버렸습니다. 본래 만들려던 그릇대신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인간의 삶과 하나님의 주체성의 관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6절 이후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나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토기장이가 그릇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들 듯이 멸망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시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멸망시키고자 하신 자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복을 받는 그릇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손의 진흙은 곧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든 피조물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과 모든 삼라만상의 개별적인 존재에게 다 적용합니다. 하나님과 태양, 하나님과 달, 하나님과 별 하나 하나, 하나님과 장미 한 송이, 하나님과 한라산, 하나님과 백두산, 백두산에 피어있는 수많은

꽃과 수많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풀 한포기 등을 하나님과 괄호로 묶습니다. 이 제각각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세우신 하나님 유일주체성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이 이 원칙 바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일대일로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기에, 인간도 주체성을 가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곧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 더욱 사랑하신 증거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주체성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 유일주체성의 대원칙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선악과였습니다. 주체성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소원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은 이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유일주체성의 대원칙을 지킬 때에 삶의 자리는 낙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짜로 주어지는 삶이었습니다.
낙원은 곧 결핍이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삶을 누리고 살았던 대표적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스스로가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 자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유일주체성의 대원칙을 지켜드리자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토기장이와 진흙처럼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주체성이 반영됩니다. 하나님과 장미는 괄호로 묶여있는 것과 같아서 장미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자발적이고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삶은 공짜가 됩니다. 장미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피고 지는 것처럼, 사자가 노력하지 않아도 사자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는 자는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왕이 되고 총리가 되는 것도 공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본문에 다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는 스스로의 주체성을 지킨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주체성의 원칙을 지켜나가려는 인간의 의지는 무섭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예레미야가 동족에게 죽음의 위기를 겪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선동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와 지혜로운 자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곧 인간의 자기 주체성의 원칙을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비전을 가져라, 대가를 지불하라, 꿈을 이루라’는 설교와 다름없습니다. 한동안 대한민국 설교강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말들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는 타락으로 생겨난 저주를 목사님들이 반복해서 전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짜로 와서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2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나의 주체성을 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바라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것이며, 이루고 싶은 일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도달하고 싶은 자리를 위해 꿈을 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근면하고 성실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도 함께 해주시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상번제의 의미는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상번제는 내 주체성의 원칙을 고수하려는 무서운 집착을 어린 양과 함께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번제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모습은 우리의 주체성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판단의 주체성이 죽는 것입니다.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손대서 하는 일들과 인생을 계획해서 끌고 가는 발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또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자리를 소원을 갖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원에 대해 죽으라는 것입니다. 또 온 몸을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마음에 달라붙어 살이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살이 되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 대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삶도 인간관계도 공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거짓 선지자나 지혜로운 자들과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신부님이나 교단의 총회장들이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존중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말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부터 삶은 공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만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입는 것, 취직하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이 모두 공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토록 시끄러운 이유는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주체성을 표현할 수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 수단은 바로 돈입니다. 그러나 돈은 힘이 아닌 무료쿠폰입니다. 내 인생을 추진하는 진짜 힘은 하나님의 뜻과 공짜로 내게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결정사항입니다.
돈이라는 무료쿠폰이 없으십니까? 먼저 돈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무료쿠폰이 많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공짜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대체 누구를 공짜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무료쿠폰을 써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고 참된 안식의 주인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돈이 무료쿠폰이면 이 세상은 무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처럼 내 주체성을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체성만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유일주체성의 대원칙이 지배하는 공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